

노동자는 건강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환경적 요인이 미흡하거나 의식이 부족해 건강을 위협받는 노동자가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연구해야 할 계층과 대상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직업건강환경연구실 조기홍 실장을 만나 산업보건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들어보았습니다.

글 한울 사진 김재이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 발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

산업보건환경연구원 / 직업건강환경연구실
조기홍 실장

Q __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직업건강환경연구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__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연구지원팀, 산업보건정책연구팀, 직업환경연구팀, 건강관리연구팀이 있으며, 각 팀은 산업보건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합니다.

Q __ 오랫동안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A __ 화학물질을 분석해오면서 분석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 4월 분석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 ‘전국 산업보건분석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 분석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열어 새로운 분석 방법을 공유하고, 분석 업무를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분석자들의 정신 건강과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Q __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 회장 재임 당시 한국산업안전공단 명칭을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A __ 그동안 우리나라는 건강보다 안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요구하는

화학물질을 분석해오면서
분석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재해예방 산업으로 확대했다는 점,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자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Q ___ 산업보건이라는 한길을 걸어오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을 듯합니다.

A ___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활동할 때 마필관리사의 폐암 발생 원인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폐암이 발생한 마필관리사가 있어 발병 원인을 밝혀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경마장과 폐암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모래 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래 먼지 분석 결과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 결정형유리규산을 발견할 수 있었죠. 덕분에 마필관리사의 폐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게 할 수 있었고,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 가능성을 열 수 있었습니다. 보통 암은 가족력이나 식습관 등 개인적인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___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연구나 마련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요.

A ___ 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려면 사람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울증 발병

률이 높은 편입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찾아내고 치료해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방송, 연극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산업보건 분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Q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A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보호 대상도 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 대한 연구는 필수입니다. 환경 측정을 위한 센서 개발과 더불어 빅데이터 활용을 높여야 하고 특히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산업보건미래포럼’을 구상 중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석학들과 함께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앞선 트렌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산업보건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고 향상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사업주와 노동자, 산업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비용이 들더라도 좋은 산업보건 프로그램을 잘 운용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주어진 의무를 잘 실행하면서 당당하게 권리도 요구해야겠지요. 전문가들은 정보와 지식을 활발하게 공유하여 산업보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요.

산업보건 분야를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연극을 진행하고 있는데, 10시간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 산업보건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산업보건 교육이 의무화되길 바랍니다. 안전과 보건은 어릴 때부터 일상화되고 습관화 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교육은 그런 면에서 미흡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이 일과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

